



이름:

WEEK 5

Jan 27

창세기 45장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의 지난 세월은 요셉 자신에게 쓴 뿌리와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남겨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을까요?

- 1) 5절: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2) 7절: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3)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 이시라.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관점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으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어디에서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애굽으로 가는 것에 확신을 얻게 되었나요? (1-4절)

-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고(창 21:33), 이삭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여 단을 쌓은 곳입니다(창 26:23~25). 내 삶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에 브엘세바와 같은 곳은 어디였나요?

Jan 28

창세기 47장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27절),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보내고 나이 147세가 되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는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 굴에 묻을 것을 부탁드립니다(29-30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 하겠노라고 맹세하자, 이스라엘(야곱)은 침상에서 무엇을 하나요?

- *하나님은 끈질긴 인생을 살아온 야곱을 인생의 막바지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8장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장면을 야곱의 생애에 믿음으로 행한 가장 기억할만한 장면으로 소개합니다(히브리서 11:21).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인생이라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성숙해졌고 마침내 야곱은 여호와의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5-16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Jan 29

창세기 49장

본장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신의 열 두 아들을 향해 주는 예언의 기록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독특하고 깊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비유되는데, 그 가지가 번성해서 담을 넘어갈 만큼 됩니다. 그의 번성은 대적들로부터의 공격의 빌미가 되겠지만(23절) 요셉은 전능자의 도우심 곧 목자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견뎌 낼 것입니다(24절).

- 25-26절에서, 요셉에게 '복', '축복'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기록되었나요?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죽음에 이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 (24절),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 (25절)라고 축복합니다.

Jan 30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위협을 느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억압하지만 그들의 창대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했지만, 십브라와 부아같은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애굽 왕 바로의 명을 순종하지 않았습니(17절)

- 1)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 2)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브라와 부아와 같은 산파들의 모습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출애굽기 2장

어제 읽은 창세기 50장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본장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 그들을 ()." (24-25절)

*약속을 기억하사, 저희를 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깁니다.

Jan 31

출애굽기 3장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육신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출 2:11)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자신감은 40년의 양치는 삶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뵈기를 두려워한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6절).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 그 근심을 (), 내가 ()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강하게 저항합니다. 모세의 주저함은 자기 집착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셨습니다(2-9). 첫 번째는, 의지할 버팀목과 같은 (), 2-5절)이고, 두 번째는, 죄를 상징하는 (), 6-7절)의 표적이며 세 번째는, 위의 두가지 이적을 믿지 않을 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표적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을 상징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때 생명이 저주와 죽음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지팡이), 내가 누구인지(나병)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Feb 1

출애굽기 5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심한 고초(벽돌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하게 하여, 전과 같은 수효의 벽돌을 만들게 하라는 모진 명령)를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 결과는 이미 출애굽기 3:19-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나아가 간청했지만(15절), 모세는 누구에게 나아가 간청하나요?(22-23절)

출애굽기 6장

5장에 기록된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시는 대신, 결국 바로가 내 백성을 쫓아낼 것인데, 그 일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